



[산업]
기름값 부담에
중고차 찬바람
천덕꾸러기된 '디젤차'
08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글루텐·GMO 프리... ‘건강한 빵’ 행복한 시간 함께할 것”

〈유전자변형농산물〉



새벽을 여는 사람들

비건 베이커리 ‘도야팡’
안도영 대표

최근 ‘비건(채식주의)’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며 식품업계부터 뷰티업계까지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환경·동물 보호 등으로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행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트렌드의 방향이 단연 ‘건강’으로 향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건 베이킹 열풍이 불었다. 그 가운데 국내 비건 베이커리 사업의 선두주자로는 ‘도야팡’이 있다.

도야팡 안도영 대표(29)의 하루는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안 대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일념으로 이른 오전부터 베이커리를 오픈한다”며 “일찍부터 준비한 건강하고 맛있는 빵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리(free)’ 제빵 급성장...“23살 시작 해 월 매출 4000만원”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글루텐 프리(Gluten-Free)’ 제빵 매출은 전년보다 14% 이상 성장했다.

비건 베이커리 도야팡의 주 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빵 재료들의 공통 특징인 ‘프리(free)’를 담고 있다. 건강에 해롭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만한 성분에서 자유로운 재료들이다. 비건을 중점으로 ‘글루텐 프리’를 비롯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프리’를 담고 있다. 도야팡은 개인 사업자임에도 월 평균 매출이 4000만원에 달한다.

안 대표의 사업은 지난 2016년, 이른나이인 23살부터 시작했다. 당시 어머니가 ‘당뇨’를 앓게 되면서 출발했다. 어머니가 빵을 좋아하시지만 프렌차이즈 점의 빵은 화학성분과 설탕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당 수치가 올라갔다고 한다. 이에 그는 “건강하게 베이킹을 해보자”란 일념으로 베이킹을 시작하고 해당 상품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사람들의 판매요청이 이어져 본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예상과는 달리 한 주에 평균 15만원에 못 미치는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다. 안 대표는 블로그 마켓을 오픈해 판매를 이어갔다. 이후 비건 식빵이 호응을 얻어 일주일에 100~150명의 주문량이 밀려오면서 한 주 매출만 2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2020년 사이트를 오픈하여 한달 평균 매출 4000만원을 달성해 지금의 도야팡이 만들어졌다.

◆“조직관리에 힘써야 가치는 결과물”

도야팡은 현재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다. 작은 규모지만 신선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식품 사업체인 만큼 조직관리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퇴사율을 줄이기 위해 MZ세대의 가치관과 운영이념을 고민해 왔다고 한다.

도야팡의 운영이념은 ‘행복하게 일해야 가치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안 대표는 “일상생활 중에는 직원들과 허물 없는 사이를 유지하고 근무 할 때는 벽이 있는 사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며 “평



제빵하고 있는 도야팡 직원들.

/도야팡

빵 좋아하는 어머니가 ‘당뇨’ 앓아 지난 2016년부터 SNS 사업 시작 사이트 오픈 후 월 매출 4000만원

직원 5명... 조직관리에 큰 힘 쏟아 MZ 가치관 등 공감... 퇴사율 줄여

“정부 창업지원, IT분야가 대부분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추가 목표는 디저트·패션 접목 ‘원스탑 스토어’ 운영하는 것”

소 직원들의 지인과의 어울릴 만큼 편하게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MZ세대의 퇴사와 창업의 이유로 기업의 억압받는 분위기와 유연하지 못한 사내 시스템을 꼽았다.

안 대표는 “요즘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는 “기업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유연한 사내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억압받는 사내 분위기와 동시에 적절하지 못한 보상으로 개인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하는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창업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본인의 삶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설명했다. 취업난 해결과 시장 다양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역량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령층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습득력이 높지 않지만 MZ세대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습득력이 빨라 발상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MZ세대가 창업을 할 때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식품 관련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의 창업 지원은 주로 IT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식품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관련 시설 확충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복한 시간에 건강한 식품이 함께 해야”

특히 안 대표는 비건 관련 사업 전망에 대해 성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물·환경 보호 등의 윤리적인 신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고, 이 트렌드에 동참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SNS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비건 내 젊은층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비건 식품 관련 사업 확장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사업 목표는 비건 음식과 디저트, 패션을 접목한 원스탑스토어를 운영하는 것.

안 대표는 도야팡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한 소비자가 “건강한 빵으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도야팡의 최종이념은 모든 사람의 행복한 시간에 도야팡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도야팡 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여자배구, 네덜란드에도 셋아웃 패배...7연패 수렁
▲김하성, 9회 추격의 2루타 쳤지만 팀은 패배 /사진 뉴시스

▲두산 김민태,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1군 제외
▲‘20년 전 골든글’ 안정환 “이탈리아 사람들, 더 이상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혈전증 이겨낸 코다, LPGA 마이어클래식 3R 선두
▲한국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 금2·은3·동3...여서정·윤진성 정상 /사진 뉴시스